

#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안정근

(전북대학교)

Ahn, Jeong Khn. (2019). A study of the complaint speech act for Koreans.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7(3), 1-22. This study examines Korean's complaint speech act in which 204 subjects participated in survey that elicited their responses from ten complaint situations. As somewhat anticipated, they opted out 31.3% of the total responses in survey questionnaire and used only 4.74 words on average on a complaint situation, which means that they complained very shortly. Gender difference is found in which men used more words than women. Age group difference is also found in which the lower age group used more words than the older age group. Considering social factors, the study finds that relatives used less words than other social groups including strangers, acquaintances, and friends, and the respondents used more words when social obligation was more explicit than implicit. For severity level on a 1 - 5 scale, their severity level in the study is 2.54 on average which indicates that they complained in the middle of indirect and mitigated on the severity scale. Gender difference is not found but age group difference is found for severity level in which the 21-29 age group's severity level is higher than age group over 30 at  $p < .05$  level. Considering social factors for severity level, the study also finds that severity level is the greatest for friends and the weakest for relatives. For social status, severity level is the greatest for equals and the weakest for younger speakers. And for social obligation, severity level is found greater when social obligation was more explicit than implicit. They scarcely used softeners and intensifiers in the study.

**주제어(Key Words):** 한국인의 불평 화행((Korean's complaint speech act),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gender difference in complaint), 불평 화행의 연령대별 차이(age group difference in complaint), 불평 화행의 사회 변인들(social factors in complaint)

---

\* 이 논문은 2018년도 전북대학교 연구교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 1. 서론: 연구 배경 및 목적

화용 연구는 1980년대 후반 유럽에서 CCSARP (The Cross-Cultural Speech Act Realization Project)로 각기 다른 언어권의 언어 행위를 서로 비교하면서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그 후 불평 화행도 다른 언어 행위 예컨대 사과 화행, 감사 화행, 거절 화행 등과 같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었고 특히 다양한 화행을 다른 언어권과 비교하면서 한 언어권이 보이는 독특한 화행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Blum-Kulka, 1989; Weizman, 1989).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 연구 또한 주로 두 개의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불평 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것이었는데 (오상이, 2005; 혼다 토모쿠니 & 김인규, 2009; 진양, 2010; 이선희, 2010, 2012) 특히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의 차이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미즈시마 히로코, 2003; 조정민, 2004; 홍승아, 2010; 박재현, 2012; 최연숙, 2013; 유양 & 양명희, 2014; 유양, 양명희 & 문지순, 2014; 김동희, 2015; 이금양, 2017; 정민주, 2017). 이러한 비교 연구 이외에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모습을 여러 각도에서 고찰하고 그것을 한국어 교육에 접목한 연구도 있었고 (최명선, 2007; 강현화 & 황미연, 2009; Li Mingji, 2010; 이민정, 2010; 상일화, 2014; 증일첩, 2016; 카나모리 사야카, 2016) 이러한 화용 비교나 응용을 배제한 채 한국인의 불평 화행만을 조사한 연구도 있었다 (김혜정, 2008; 유연, 2008; 곽소로, 2017).

두 개 이상의 서로 다른 언어권에서 보이는 불평 화행의 모습을 비교하는 국내 연구는 많은 편이 아니다. 오상이(2005)는 한국인과 독일인의 불평 화행 연구에서 한국인은 독일인에 비해 체면을 고려하여 보다 완화된 표현을 쓰기 때문에 발화 길이가 길며 반면 독일인은 보다 직접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그 빈도수도 높다고 했다. 이선희(2010)는 한국인과 일본인의 불평 화행의 차이를 비교하면서 한국인은 일본인에 비해 직접적인 발화와 행동을 하는 편이라고 했다.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집단과 한국어를 배우는 학습자와의 불평 화행의 차이는 위에서 언급한 미즈시마 히로코(2003)를 비롯한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었고 그들의 공통된 지적은 한국인은 직접적인 불평을 한국어 학습자는 간접적인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이금양, 2017; 유양 & 양명희 & 문지순, 2014). 또한 이러한 차이는 한국에 온 여성결혼이민자에게도 나타났다. 정민주(2017)는 TV 프로그램 다문화 고부 갈등 대화에 나타난 불평 화행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직접적인 불평보다 간접적인 불평이 더 많다고 보고한 반면 김동희(2015)는 TV에 방영된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의 대화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인보다 직접적인 불평을 더 많이 한다고 보고하였고 그것은 그들의 언어 이해 부족이나 언어

능력의 한계에 기인한다고 했다. 이렇게 상반된 두 연구 결과의 차이는 추후 더 많은 다문화 가정에 대한 연구를 통해 보다 일반적인 결론에 다다를 것이라 생각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어 학습자와 여성결혼이민자의 불평 화행의 차이가 있다면 이것은 단지 이 두 집단이 가지고 있는 한국어에 대한 지식의 결여나 화용의 결핍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어쩌면 Discourse Completion Test(DCT)를 이용한 설문 방식과 TV에 방영된 실제 화행의 차이일까 아니면 그들의 정체성(identity), 즉 그들은 누구인가가 이러한 화용의 차이를 가져다 준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이렇듯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 연구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는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불평 화행의 차이를 직접적 불평 아니면 간접적 불평의 편향성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편향성에 대한 제시는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이는데, 김혜정(2008)은 고부 간 갈등 대화에서 시어머니는 공격적 발화를 며느리는 방어적 발화를 불평 전략으로 사용한다고 했고, 유연(2008)은 드라마에 나타난 불평 화행을 직접적인 불평과 간접적인 불평 전략으로 나누었고, 곽소로(2017)는 TV 토크쇼 및 예능 프로그램에서 나타나는 불평 화행을 화자 중심과 청자 중심으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보듯, 국내에서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는 주로 그것이 직접적인 화행 또는 간접적인 화행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살핀 것이고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 간의 불평 화행 차이도 거의 어느 집단이 직접적인 불평 화행이나 간접적인 불평 화행을 더 사용하는지 조사한 것이었다. 또한 DCT를 이용한 불평 화행 연구에서는 설문 참여자가 너무 적은 편이어서 불평 화행의 일반적인 모습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 그나마 이민정(2010)의 연구에 참여자는 120명(대학생 남녀 각 30명, 직장인 남녀 각 30명)이고 연령대도 10대 1명(0.8%) 20대 68명(56.7%) 30대 39명(32.5%) 40대 12명(10%)으로 다른 연구에 비해 참여자가 널리 분포되어 있지만 이 또한 한국인의 불평 화행을 제대로 밝히기에는 참여자의 수와 분포가 부족하기 그지없다. 무엇보다도 한국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가 한국인과 한국어 학습자와의 비교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고 한국인만을 대상으로 한 불평 화행 연구에서도 그 모습이 직간접적 화행에 맞추어져 있어서 한국인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 차이, 또는 사회 변인들과의 관계를 밝히는 제대로 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다시 말하면, 거의 대다수의 화행 연구가 화행의 빈도수 차이만을 언급하고 그것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지 않은 채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어서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불평 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대별 차이, 그리고 사회 변인별 차이 등을 204명이라는 많은 수의 참여자를 대상으로 통계적으로 그 차이가 유의미한 것인지 심도 있게 밝히려 한다.

## 2. 연구 방법

한국인 불평화행의 성별 차이, 연령대별 차이, 그리고 사회적 변인별 차이 등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설문지를 이용하였다. 설문지 내용은 한국인이 보편적으로 경험하는 불평 화행이 나타날 수 있는 10 개 상황을 설정하고 각각의 상황에 화자가 어떻게 불평을 하는 지 기술하도록 했다. 여기서 말하는 보편적 상황이란 화자가 직접 당사자가 되어 그 상황에서 자기의 목소리를 낸다는 것이다. 당사자가 된다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왜냐하면 기존의 많은 화행 연구의 설문에서는 응답자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마치 그것이 자기 입장인 것처럼 응답하는 식이었기 때문에 진정한 자기 목소리가 아니었다. 예컨대 만약 당신이 주차장에서 주차하려고 하는데 누군가 당신 자리에 끼어들어 주차한다면 어떻게 불평하시겠어요 하는 식이다. 평생 이런 경험도 없고 차도 없는 응답자라면 그는 다른 사람이 되어 응답 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본 연구의 설문에서는 이런 식의 상황을 배제하고 모든 응답자가 가능한 한 자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보편적 상황을 설정했다. 또한 각각의 설문 항목은 화자와 청자 간의 사회 변인(social factors)을 고려하여 10 개 항목 모두 다른 변인들의 조합으로 구성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 변인은 사회 거리 (social distance), 신분 (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 의무 (social obligation) 3 가지이며, 사회 거리는 친한 정도로 1. 낯선 사이 (strangers), 2. 아는 사이 (acquaintances), 3. 친구 (friends), 4. 친족 (relatives)으로, 신분은 화자와 청자 간 나이를 고려하여 1. 화자가 어린 경우, 2. 청자가 어린 경우, 3. 동등한 경우 (equals)로, 사회 의무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1. 분명한 경우 (explicit), 2. 불분명한 경우 (implicit)로 구분했다. 본 연구의 10 개 설문 항목은 이러한 사회 변인들을 배타적으로 배열했다. 예컨대 1번 항목의 사회 변인이 화자와 청자 간 낯선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로 구성되었다면 2번 항목은 화자와 청자 간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로 구성되었다. 아래는 본 연구의 설문지이며 괄호에 표시한 것은 설문에는 나타나지 않은 10 개 설문 항목의 사회 변인이다.

설문지

성별(남, 여) 나이 ( )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당신은 어떤 말을 하나요?

할 말이 없으면 하지 않아도 됩니다.

1. 식당에서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남자가 옆자리에서 담배를 피우고 있을 때  
(낯선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2. 당신보다 나이가 많은 이웃집 아줌마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3. 버스표를 사려고 줄 서 있는데 당신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새치기를 할 때  
(낯선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4. 당신보다 나이 많은 단골 식당 아주머니가 준 밥을 먹다가 돌을 씹었을 때  
(아는 사이,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5. 한 아이가 도서관에서 귀에 거슬리게 전화를 하고 있을 때  
(낯선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6. 두어 번 만난 적 있는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이 나에게 반말을 할 때  
(아는 사이,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7. 저번처럼 이번에도 친구가 약속 시간보다 많이 늦게 나왔을 때  
(친구, 동등한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8. 전에 빌려준 돈도 갚지도 않고서 친구가 돈을 또 빌려 달라고 할 때  
(친구, 동등한 경우, 사회적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9. 당신보다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이 당신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할 때  
(친족, 화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불분명한 경우)
10. 집안에서 당신보다 나이가 어린 사람이 항상 화장실을 더럽게 사용할 때  
(친족, 청자가 어린 경우, 사회 의무가 분명한 경우)

위 설문지에서 보이듯, 각각의 설문 항목은 기존 화행 연구 (Blum-Kulka, 1989; Olshtain & Weinbach, 1993)에서 주로 채택하고 있는 DCT가 아니라 Katz(1987)가 사용한 반응유도문항(reaction elicitation questionnaire) 또는 Ahn(2011, 2012) 그리고 안정근(2015)에서 사용한 개방형 설문이다. DCT는 화자의 응답을 어떤 틀 속으로 유도하는 경향이 있음에 반해 이러한 개방형 설문은 화자로 하여금 자기 마음껏 응답을 하게 하는 장점이 있다. 자유로운 화자의 응답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개방형 설문을 채택했고 본 설

문은 2018년 일 년여에 걸쳐 한국에서 한국인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 3. 연구 분석 및 결과

본 설문에 참여한 응답자는 총 204 명이며 그 중 남자는 98 명(48.0%) 여자는 106 명(52.0%)이다. 나이는 14세에서 82세까지며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40 명(19.6%), 21-29세 87 명(42.6%), 그리고 30세 이상 77 명(37.7%)의 3 집단으로 나누었다.

#### 3.1. 무응답률

설문에 참여한 204 명이 각각 10 문항씩 모두 응답할 경우 총 2,040 개의 문항 수가 나오는데 설문에서 안내한 대로 할 말이 없는 경우 응답을 안 해도 되었기에 무응답 문항 수가 많이 나온 편이다. 즉, 본 연구의 설문 문항에서 불평을 안 한 경우(opt-out)가 638 문항으로 전체 2,040의 31.3%에 달한다. 이 수치는 불평 화행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응답자들이 불평을 하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이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특징이라고는 말 할 수 없다. 왜냐하면 Katz(1987)의 연구에서도 밝힌 바처럼 응답을 안 한, 즉 그의 표현대로라면 회피(avoidance)를 한 경우가 영국인(British) 35.0%, 미국인(American) 39.0%, 그리고 이스라엘인(Israeli) 36.0% (Olshtain & Weinbach, 1993, p. 113)에 달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나타난 31.3%의 무응답률은 어느 정도 다른 민족의 수치와 비슷하다. 즉 어느 특정한 인종을 떠나서 불평 화행은 다른 화행에 견주어 우리가 쉽게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불평 화행이 초래하는 후폭풍이 만만치 않으며 극단적으로는 인간관계의 단절로까지 치달을 수 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래 표 1은 각 설문 항목 당 무응답률이다.

표 1. 설문 항목별 무응답률

설문 항목	1	2	3	4	5	6	7	8	9	10	전체
응답	N 123	128	168	116	160	133	168	194	87	177	1402
	% 60.3	37.3	82.4	56.9	78.4	65.2	82.4	95.1	42.6	86.8	68.7
무응답	N 81	128	36	88	44	71	36	10	117	27	638
	% 39.7	62.7	17.6	43.1	21.6	34.8	17.6	4.9	57.4	13.2	31.3
전체	N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	2040
	%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위 표 1에서 보이듯, 무응답률이 높은 설문 항목은 2번(62.7%)과 9번(57.4%)이다. 무려 과반수가 넘는 무응답률을 보이고 있다. 이 두 항목의 공통점은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로서 2번 이웃집 아줌마가 길가에 쓰레기를 버리고 있을 때나 9번 집안 어른이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낼 때 불평을 삼가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응답률이 높은 항목은 8번(95.1%)과 10번(86.8%)인데 8번 친구 사이에서 불평이 가장 빈번하게 나타나고 10번 집안 어른이 어린 사람에게 불평을 스스럼없이 해대는 것을 볼 수 있다.

### 3.2. 단어 수

각 설문 항목별 응답자가 사용한 단어 수는 아래 표 2와 같다. 표 2에서 보이듯, 응답자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총 단어 수는 1,402 개며 항목별 평균 4.74 개의 단어를 사용했다. 즉 응답자들은 불평을 하지 않는 경우도 31.3%에 달하고 있지만 불평을 할 때도 매우 짤막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 수치는 다른 언어권 연구에서 밝힌 평균 수치보다 아주 적다. 예컨대, Blum-Kulka & Olshtain (1986)의 Hebrew 화자 불평 화행 연구에서는 평균 7.05 개의 단어를 사용하고 있고 Hebrew를 배우는 학습자의 경우 이것보다 많은 평균 10.14 개의 단어 수를 사용하고 있다. 즉, 무응답률은 타 언어권 연구와 비슷하게 나타나지만 불평할 때 사용하는 단어 수는 한국인의 경우 매우 적다는 것이다.

표 2. 설문 항목별 단어 수

설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1	123	2	16	5.59
2	76	1	22	4.92
3	168	1	14	4.81
4	116	2	14	5.17
5	160	1	23	4.97
6	133	1	15	5.21
7	168	1	14	4.43
8	194	1	20	4.88
9	87	1	8	2.51
10	177	1	14	4.43
전체	1,402	1	23	4.74

불평할 때 사용하는 평균 단어 수도 설문 항목별 차이가 있는데 평균 단어 수가 많은 항목은 1번(5.59 개)과 6번(5.21 개)이다. 이 두 항목의 공통점은 불평을 해야 하는 사회적 의무가 분명한 경우라는 점이다. 특히 6번의 경우 나이가 어린 사람이 화자에게 반말을 하는

경우인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길게 불평을 하는 경향이 있음을 보이고 있으며 1번의 경우 나선 사람에게 그것도 화자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에게 식당에서 담배를 피우지 말라고 불평하는 경우인데 비록 무응답률이 39.7%에 달하지만 일단 불평을 하면 상대적으로 다른 항목의 경우보다 단어 수를 많이 사용하고 있다. 어쩌면 첫 번째 설문 항목이라는 점도 응답자들이 다른 항목에 비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길게 응답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다.

반면, 불평할 때 사용하는 평균 단어 수가 현저하게 적은 항목은 9번(2.51 개)이다. 이 경우는 당신보다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이 당신에게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해대는 경우인데 무응답률도 57.4%에 달하고 불평할 때에도 아주 짧게 한다는 것이다. 평균 단어 수가 2.51 개라는 것은 거의 두어 마디로 불평을 끝낸다는 것이다. 상대가 집안 어른인 만큼 불평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 3.3. 성별 및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

SPSS 25를 이용하여 성별 및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를 알아보았다. 성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3과 같다.

표 3. 성별 단어 수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단어 수	남자	667	4.97	2.797	6.958	.003
	여자	735	4.54	2.720		

표 3에서 보듯이, 남자는 설문 항목 10개를 통틀어 총 667 개의 단어를 사용하였고 이는 항목 별 평균 4.97 개를 사용한 것이다. 반면 여자는 총 735개를 사용하였고 이는 항목 별 평균 4.54개를 사용한 것이며 이 두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F = 6.958, p = .003$ ). 다시 말하면 남자가 여자에 비해 불평할 때 좀 더 많은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와 Tukey HSD를 실행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4와 같다.

표 4. 연령대별 단어 수 차이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20세 이하	274	5.48	3.609
21-29세	601	4.88	2.610



30세 이상	527	4.21	2.287
전체	1,402	4.74	2.764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value
집단 간	311,808	2	155.904	20.985	.000
집단 내	10393.753	1399	7.429		
전체	10705.561	1401			

Tukey HSD

(I) 연령대	(J) 연령대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20세 이하	21-29세	.605	.199	.007
	30세 이상	1.275	.203	.000
21-29세	20세 이하	-.605	.199	.007
	30세 이상	.670	.163	.000
30세 이상	20세 이하	-1.275	.203	.000
	21-29세	-.670	.163	.000

본 연구에서는 표 4에 나타나듯, 연령대를 3 집단 (20세 이하 19.6%, 21-29세 42.6%, 그리고 30세 이상 37.7%)으로 나누었다. 설문 항목 10 개를 통틀어 20세 이하는 총 274 단어 (평균 5.48 개)를, 21-29세는 총 601 단어 (평균 4.88 개), 그리고 30세 이상은 총 527 단어 (평균 4.21 개)를 사용하였다. 이 세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표 4에서 보듯 집단 간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 $F = 20.985, p = .000$ ). 즉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할 때 좀 더 많은 단어 수를 사용한다는 것이다.

3.4. 불평 정도 (severity scale)

본 연구에서는 불평 정도를 다음의 5 가지 척도로 구분하였다: 1. 불평하지 않음 (opt-out), 2. 간접적 불평 (indirect), 3. 완곡한 불평 (mitigated), 4. 직접적 불평 (unmitigated), 5. 경고 (warning or threat). 전반적으로 화용 연구에서는 불평 정도를 측정하는 척도에서 불평하지 않음을 제외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이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불평을 하지 않는 경우는 불평의 가장 소극적 단계로 보아야 하며 또한 이러한 무용

답의 경우가 본 연구에서도 31.3%에 달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제외하고 불평 정도를 논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Katz(1987)가 언급한 무응답 (avoidance)의 개념을 불평하지 않음 (opt-out)으로 간주하고 불평 정도의 가장 낮은 척도를 주었다. 그렇기에 이것은 Olshtain & Weinbach (1993, p.115)가 채택한 가장 낮은 불평 정도인 slightly below the level of reproach와는 다르다. 그들이 어떻게 무응답을 처리하였는지 밝히지 않고 있어 본 연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를 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아래 표 5는 설문 항목 별 불평 정도를 나타낸 것이다.

표 5. 설문 항목별 불평 정도

설문 항목	N	최소값	최대값	평균	표준편차
1	204	1	5	2.32	1.241
2	204	1	5	1.90	1.249
3	204	1	5	2.76	1.230
4	204	1	5	2.42	1.346
5	204	1	5	2.68	1.093
6	204	1	5	2.54	1.401
7	204	1	5	3.02	1.303
8	204	1	5	3.13	.981
9	204	1	4	1.63	.835
10	204	1	5	3.05	1.131
전체	2,040	1	5	2.54	1.280

표 5에서 보이듯, 불평 정도가 심한 경우는 8번(3.13), 10번(3.05), 그리고 7번(3.02)이다. 7번과 8번의 공통점은 친구 사이인데 바로 친구 사이일 때 불평의 강도가 세계 나타났다. 10번은 집안 어른이 자기보다 어린 사람에게 불평을 하는 경우인데 불평의 강도가 3.02면 하고 싶은 말은 대충 다한 경우이다. 반면, 불평 정도가 약한 경우는 9번(1.63)과 2번(1.90)이다. 이 둘의 공통점은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로 이 정도의 불평은 간접적인 불평으로 봐야 한다. 나이 어린 화자가 자기보다 어른에게 직접적인 불평을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는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평균 불평 정도는 2.54다. 이 수치는 간접적 불평과 완곡한 불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다. 즉 이 두 가치를 적절히 사용하고 있는 셈이다.

### 3.5. 성별 및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

성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6과 같다.

표 6. 성별 불평 정도 차이

	성별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불평 정도	남자	980	2.53	1.299	1.227	.268
	여자	1,060	2.56	1.262		

표 6에서 보이듯, 남자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3, 여자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6으로 남녀 간 불평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 = 1.227, p = .268).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One-way ANOVA와 사후검정으로 Tukey HSD를 실시했고 그 결과는 아래 표 7과 같다.

표 7. 연령대별 불평 정도 차이

연령대	N	평균	표준편차
20세 이하	400	2.59	1.357
21-29세	870	2.60	1.333
30세 이상	770	2.46	1.169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불평 정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9.815	2	4.907	3.002	.050
집단 내	3330.126	2037	1.635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연령대	(J) 연령대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20세 이하	21-29세	-.016	.077	.977
	30세 이상	.132	.079	.217
21-29세	20세 이하	.016	.077	.977
	30세 이상	.148	.063	.052

30세 이상	20세 이하	- .132	.079	.217
	21-29세	- .148	.063	.052

표 7에서 보이듯, 20세 이하의 불평 정도 평균은 2.59, 21-29세는 2.60, 그리고 30세 이상은 2.46으로, 연령대별 불평 정도는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냈지만 ( $F = 3.002, p = .050$ ), Tukey HSD로 사후검정을 해보니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21-29세와 30세 이상의 두 집단 비교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전반적으로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다.

### 3.6. 사회 변인(social factors)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 사용한 사회적 변인은 화용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사회 거리 (social distance), 신분 (social status), 그리고 사회 의무 (social obligation)의 3 가지다.

#### (1)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친한 정도에 따라 1. 낯선 사이, 2. 아는 사이, 3. 친구, 4. 친족으로 나누었다. 아래 표 8은 One-way ANOVA를 실시한 사회적 거리별 단어 수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8.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 One-way ANOVA

사회 거리	N	평균	표준편차
낯선 사이	451	5.08	2.887
아는 사이	325	5.13	2.776
친구	362	4.67	2.866
친족	264	3.80	2.096
전체	1,402	4.74	2.764

####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337.869	3	112.623	15.186	.000
집단 내	10367.692	1398	7.416		
전체	10705.561	1401			

## Tukey HSD

(I) 사회 거리	(J) 사회 거리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낮선 사이	아는 사이	-.052	.198	.994
	친구	.406	.192	.149
	친족	1.282	.211	.000
아는 사이	낮선 사이	.052	.198	.994
	친구	.458	.208	.124
	친족	1.334	.226	.000
친구	낮선 사이	-.406	.192	.149
	아는 사이	-.458	.208	.124
	친족	.876	.220	.000
친족	낮선 사이	-1.282	.211	.000
	아는 사이	-1.334	.226	.000
	친구	-.876	.220	.000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는 위 표 8에서 보이듯, 낮선 사이에서는 평균 5.08 개, 아는 사이에서는 5.13 개, 친구는 4.67 개, 친족은 3.80 개를 사용하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왔으나 ( $F = 15.186$ ,  $p = .000$ ),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친족과 다른 집단 간에서만  $p = .000$  수준에서 단어 수 차이가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친족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불평이 매우 짧다는 것이다.

## (2) 신분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는 신분은 화자와 청자 간 나이를 고려하여 1. 화자가 어린 경우, 2. 청자가 어린 경우, 3. 동등한 경우 (equals)로 나누었다. 아래 표 9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신분별 단어 수 차이이다.

표 9. 신분별 단어 수 차이 One-way ANOVA

신분	N	평균	표준편차
화자가 어린 경우	402	4.67	2.787
청자가 어린 경우	638	4.83	2.692
동등한 경우	362	4.67	2.866
전체	1,402	4.74	2.764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value
집단 간	8.334	2	4.167	.545	.580
집단 내	10697.227	1399	7.646		
전체	10705.561	1401			

표 9에서 보이듯, 신분별 단어 수는 화자가 어린 경우 평균 4.67 개, 청자가 어린 경우 평균 4.83 개, 그리고 동등한 경우 평균 4.67 개를 사용하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다 ( $F = .545$ ,  $p = .580$ ). 즉, 신분별 단어 수 차이는 없다.

### (3)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

본 연구에서 사회 의무는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1. 분명한 경우와 2. 불분명한 경우로 구분했다. 아래 표 10은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한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이다.

표 10. 사회 의무별 단어 수 차이 독립표본 t-test

사회 의무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단어 수					
분명한 경우	853	4.86	2.605	7.418	.007
불분명한 경우	549	4.56	2.988		

표 10에서 보이듯,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평균 4.86 개의 단어를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불분명한 경우 평균 4.56 개의 단어를 사용했고 이 두 집단 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7.418$ ,  $p = .007$ ). 즉,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을 더 많이 한다는 것이다.

(4)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

아래 표 11은 One-way ANOVA를 실시한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11.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 One-way ANOVA

사회 거리	N	평균	표준편차
낮선 사이	612	2.59	1.203
아는 사이	612	2.28	1.360
친구	408	3.08	1.153
친족	408	2.34	1.222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불평 정도	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value
집단 간	176.187	3	59.729	37.795	.000
집단 내	3163.753	2036	1.554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사회 거리	(J) 사회 거리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낮선 사이	아는 사이	.302	.071	.000
	친구	-.492	.080	.000
	친족	.248	.080	.010
아는 사이	낮선 사이	-.302	.071	.000
	친구	-.794	.080	.000
	친족	-.054	.080	.906
친구	낮선 사이	.492	.080	.000
	아는 사이	.794	.080	.000
	친족	.740	.087	.000
친족	낮선 사이	-.248	.080	.010
	아는 사이	.054	.080	.906
	친구	-.740	.087	.000

표 11에서 보이듯, 불평 정도 평균은 낮선 사이에서는 2.59, 아는 사이에서는 2.28, 친

구는 3.08, 친족은 2.34였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37.795, p = .000$ ), 또한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친족과 아는 사이 간 차이 ( $p = .906$ )를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 간에서는 불평 정도 차이가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친구 사이가 불평 정도가 가장 심하고 친족 사이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5)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

아래 표 12는 One-way ANOVA를 실시한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와 사후검정으로 사용한 Tukey HSD 결과이다.

표 12.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 One-way ANOVA

신분	N	평균	표준편차
화자가 어린 경우	816	2.07	1.225
청자가 어린 경우	816	2.76	1.232
동등한 경우	408	3.08	1.153
전체	2,040	2.54	1.280

One-way ANOVA

단어 수	제공합	자유도	평균제공	F	p-value
집단 간	339.555	2	169.777	115.264	.000
집단 내	3000.386	2037	1.473		
전체	3339.941	2039			

Tukey HSD

(I) 신분	(J) 신분	평균차이(I-J)	표준화 오류	p-value
화자가 어린 경우	청자가 어린 경우	-.690	.060	.000
	동등한 경우	-1.012	.074	.000
청자가 어린 경우	화자가 어린 경우	.690	.060	.000
	동등한 경우	-.322	.074	.000
동등한 경우	화자가 어린 경우	1.012	.074	.000
	청자가 어린 경우	.322	.074	.000



표 12에서 보이듯, 불평 정도 평균은 화자가 어린 경우 2.07, 청자가 어린 경우 2.76, 그리고 동등한 경우 3.08로 나타났고 이들 집단 간 One-way ANOVA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115.264, p = .000$ ), 또한 사후검정 Tukey HSD의 결과를 보면 이들 집단 간 차이는 모든 경우에서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신분이 동등한 경우 불평 정도가 가장 세고 화자가 어린 경우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고 그 차이는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하다.

(6)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독립표본 t-test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3과 같다.

표 13. 사회 의무별 불평 정도 차이 독립표본 t test

사회 의무		N	평균	표준편차	F	p-value
불평 정도	분명한 경우	1,239	2.60	1.323	13.146	.000
	불분명한 경우	801	2.47	1.207		

표 13에서 보이듯,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불평 정도는 평균 2.60이고 불분명한 경우는 평균 2.47이며 이 두 집단 간 차이는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 $F = 13.146, p = .000$ ). 즉,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났다.

(7) 완곡어 (softeners)

불평할 때 완곡어, 예컨대 ‘저’, ‘좀’, ‘그러니까’ 등의 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 알아보았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4와 같다.

표 14. 완곡어 사용 빈도

단어 수	1 개	2 개	3 개	평균	표준편차	전체
	291 (14.3%)	29 (1.4%)	6 (.3%)	1.13	.384	326 (16.0%)
결측						1,714 (84.0%)
전체						2,040 (100.0%)

표 14에서 보이듯, 완곡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결측) 경우가 84.0%에 달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 완곡어 사용은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그렇지만 사용한 경우 16.0%

에 국한해서 보면 평균 1.13 개의 완곡어를 사용하고 있다.

(8) 강조어 (intensifiers)

불평할 때 강조어, 예컨대 ‘너무’, ‘야’, ‘정말’ 등의 단어를 어느 정도 사용하는지도 알아보고 그 결과는 아래 표 15와 같다.

표 15. 강조어 사용 빈도

단어 수	1 개	2 개	3 개	평균	표준편차	전체
	99 (4.9%)	17 (.8%)	3 (.1%)	1.19	.456	119 (5.8%)
결측						1,921 (94.2%)
전체						2,040 (100.0%)

표 15에서 보이듯, 강조어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결측) 경우가 94.2%에 달하기 때문에 불평할 때 강조어 사용 또한 완곡어와 마찬가지로 잘 나타나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 강조어를 사용한 경우 5.8%에 국한해서 보면 평균 1.19 개의 강조어를 사용하고 있다. 즉, 불평할 때 완곡어나 강조어 사용이 잘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이들과 다른 변수 예컨대 성별, 연령대 별, 또는 사회 변인들과의 관계를 조사하는 것은 별 의미가 없어 보인다.

#### 4. 결론

한국인의 불평 화행을 조사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204 명이 설문에 응하였고 그 중 남자는 98 명(48.0%) 여자는 106 명(52.0%)이, 연령대별로는 20세 이하 40 명(19.6%), 21-29세 87 명(42.6%), 그리고 30세 이상 77 명(37.7%)의 3 집단이 참여했다. 기존의 화행 연구에서는 대개 참여자의 수가 수십 명에 불과하고 그것도 거의 20대 대학생을 대상으로 했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 확보한 204 명의 참여자 그것도 성별과 연령대가 고루 분포되어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일단 연구 대상의 폭과 질은 확보한 셈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행 연구에서 주로 채택한 DCT 설문보다는 좀 더 개방적인 Reaction elicitation questionnaire를 실시했고 설문 문항도 설문에 참여한 자가 그 상황에서 타자의 입장에서가 아니라 직접 당사자가 되어 화행을 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꾸며졌다. 무엇보다도 기존 화행 연구에서 결과로 제시한 내용이 주로 빈도 차이만을 언급하는데 반해 본 연구에서는 그러한 빈도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지 t-test와 ANOVA를 실시했고 그것을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한국인의 불평 화행의 여러 모습을 찾아냈다.

먼저, 불평 화행이 쉽게 행해지는 언어 행위가 아니라는 것이 무응답률에서 나타났다. 설

문 항의 31.3%에서 응답이 전혀 없었는데 이러한 수치는 다른 언어권의 불평 화행 연구의 무응답률과 거의 비슷한 것으로 불평 화행을 꺼리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나타났듯 특히 화자가 청자보다 나이가 어린 경우 불평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고 이렇게 높은 무응답률은 불평 화행에 내재한 위험을 우리가 잘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불평할 때 사용한 단어 수 또한 매우 적은 편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불평할 때 평균 4.74 개의 단어를 사용했는데 이 수치는 다른 언어권 연구에서 밝힌 평균 수치보다 아주 적은 것으로 불평을 하는 경우에도 한국인들은 아주 짧게 한다는 것이다. 특히 상대가 나이 많은 집안 어른일 경우 불평을 삼가거나 하더라도 아주 짧게 간접적으로 하고 있다. 또한 불평할 때 사용한 단어 수는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사회 변인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는데 남자가 여자에 비해 ( $F = 6.958, p = .003$ ),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좀 더 많은 단어 수를 사용했다 ( $F = 20.985, p = .000$ ). 사회 거리별 단어 수 차이를 보면 그 차이가 유의미하게 나왔지만 ( $F = 15.186, p = .000$ ) 사후검정 결과 친족과 다른 집단 간에서만  $p = .000$  수준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시 말하면 친족에서는 다른 집단보다 불평이 매우 짧았다. 신분별 단어 수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고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을 더 많이 했다 ( $F = 7.418, p = .007$ ).

불평 정도를 보면 본 연구에서 나타난 응답자의 평균 불평 정도는 2.54다. 이 수치는 간접적 불평과 완곡한 불평의 중간에 위치하고 있어서 즉, 한국인은 불평할 때 이 두 가지 전략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 간 불평 정도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고 ( $F = 1.227, p = .268$ ), 연령대별 불평 정도는 연령대가 낮은 집단이 높은 집단에 비해 불평 정도가 좀 더 강하게 나타났지만 ( $F = 3.002, p = .050$ ), 사후검정 결과 그 차이는  $p < .05$  수준에서 21-29세와 30세 이상의 두 집단 간에서만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사회 거리별 불평 정도 차이는 친족과 아는 사이 간( $p = .906$ )을 제외하고는 다른 모든 집단 간에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 $F = 37.795, p = .000$ ). 특히 친구 사이가 불평 정도가 가장 심하고 친족 사이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신분별 불평 정도 차이도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 $F = 115.264, p = .000$ ), 특히 신분이 동등한 경우 불평 정도가 가장 세고 화자가 어린 경우가 가장 약하게 나타났다. 불평할 수 있는 상황이 분명한 경우 또한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불평 강도가 더 세게 나타났다 ( $F = 13.146, p = .000$ ).

완곡어나 강조어는 한국인의 불평 화행에서 별로 나타나지 않았다. 불평 자체가 매우 간략하고 짧은 편이어서도 그렇겠지만 불평 화행과는 별로 어울리지 않는 것으로도 볼 수 있겠다.

불평 화행은 그 성격 자체가 매우 위험한 언어 행위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아주 적은 단어 수, 낮은 수준의 불평 강도, 그리고 높은 무응답률 등이 그것을 반영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본 연구는 한국인 불평 화행을 성별, 연령대별, 그리고 사회 변인별로 심도 있게 고찰함으로써 한국인의 전반적인 불평 화행의 모습을 밝혔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안정근

하겠다.

## 참고문헌

- 강현화, 황미연. (2009). 한국어 교육을 위한 불평표현 문형 연구 - 불평화행과 인용표현의 관계를 중심으로, *한말연구*, 24, 5-31.
- 곽소로. (2017). 한국인의 불평 화행 연구: TV 토크쇼 및 예능 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전남대학교.
- 김동희. (2015). 여성결혼이민자의 공손표현 사용양상: 고부간 불평상황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김혜정. (2008). *가족 간 갈등대화의 구조와 책략 연구-고부 부부 간 갈등 대화를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인제대학교.
- 미즈시마 히로코. (2003). 한국어 불평 화행의 중간 언어적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박재현. (2012). 서비스 상황에서의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모어 화자와 중국인 학습자의 발화 양상 비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상일화. (2014). 드라마를 활용한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석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 안정근. (2015). 한국인의 거절화행 전략: 나이와 남녀 차이. *언어학*, 23(1), 139-160.
- 오상이. (2005). 불만표시 발화행위: 독일인과 한국인의 상호문화 비교. *중등교육연구*, 53(2), 199-220.
- 유양, 양명희. (2014).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하위 전략을 중심으로. *한국어 의미학*, 46, 279-302.
- 유양, 양명희, 문지순. (2014). 한국 내 중국인 직장인의 불평 화행에 대한 연구: 상위 전략을 중심으로. *사회언어학*, 22(3), 135-154.
- 유연. (2008). 대화에 나타난 불평화행의 형식적 기제 연구-드라마 대화를 중심으로. *텍스트언어학*, 39, 157-181.
- 이금양. (2017). 중국인 한국어 학습자의 불평 화행 실현 양상에 대한 연구: 중국 내 20대 중급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 이민정. (2010). 한국어 불평 화행 교육 방안 연구: 한국어 모어 화자의 담화와 교재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한양대학교.
- 이선희. (2010).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서비스 장면에서의 불평 화행. *일본어교육*, 51, 15-26.
- 이선희. (2012). 한국어 화자와 일본어 화자의 불평 응답 화행. *일본어교육*, 62, 129-141.

- 정민주. (2017). 다문화 고부 갈등 대화에 나타난 불평 화행의 실현 양상과 교육적 시사점. *국어교육연구*, 64, 21-48.
- 조정민. (2004).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 연구: 일본어권 한국어 고급 학습자를 대상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증일철. (2016). *한국어 불평에 대한 응답 화행 실현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진양. (2010). *한국어와 중국어의 불평 화행에 관한 대조 연구*. 석사학위논문. 중앙대학교.
- 최명선. (2007). *한국어 불평 응답 화행의 양상과 교육 방안 연구: 한국인 모어 화자와 일본인, 중국인 학습자의 담화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 최연숙. (2013). *구두 DTC와 회고적 보고 방법을 활용한 불평 화행의 전략 사용 연구: 베트남 결혼이민자 한국어 학습자를 중심으로*.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카나모리 사야카. (2016). *영화를 활용한 한국어 불평화행 교육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세종대학교.
- 혼다 토모쿠니, 김인규. (2009). *한국어-일본어 불평 화행의 비교 문화 화용론적 연구*. *국제어문*, 45, 5 -44.
- 홍승아. (2010). *한국어 학습자의 한국 거주기간에 따른 불평 화행의 인지 연구*. 석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Ahn, J. (2011). Cross-cultural variations of apology realization in Korean. *The Sociolinguistic Journal of Korea*, 19(2), 261-285.
- Ahn, J. (2012). Why do Koreans explain a lot when making an apology? *The Linguistic Association of Korea Journal*, 20(3), 1-15.
- Blum-Kulka, S., & Olshtain, E. (1986). Too many words: Length of utterance and pragmatic failure. *Studies in second language acquisition*, 8, 47-61.
- Blum-Kulka, S. (1989). Playing it safe: The role of conventionality in indirectnes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pp. 37-70). Norwood: Ablex.
- Katz, L. (1987). *Face risk in the expression of censure: A cross-cultural study*. Unpublished master's thesis, School of Education, Tel Aviv University.
- Li Mingji. (2010). *중국어권 학습자를 위한 한국어 화행 교육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 Olshtain, E. & Weinbach, L. (1993). Interlanguage features of the speech act of complaining. In G. Kasper & S. Blum-Kulka (Eds.), *Interlanguage pragmatics* (pp. 108-122).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 Weizman, E. (1989). Requestive hints. In S. Blum-Kulka, J. House, & G. Kasper (Eds.), *Cross-cultural pragmatics: Request and apologies* (pp. 71-92). Norwood:

안정근

Ablex.

**안정근**

54896 전주시 덕진구 백제대로 567  
전북대학교 인문대학 영어영문학과 교수  
전화: (062)270-3213  
이메일: jkahn@jbnu.ac.kr

Received on July 31, 2019

Revised version received on September 25, 2019

Accepted on September 30, 2019